

## 장유착박리술 후에 현저한 호전을 보인 피막성 복막경화증 1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1</su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sup>2</sup>,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내과학교실<sup>3</sup>

윤현배<sup>1</sup> · 한승석<sup>1</sup> · 김효상<sup>1</sup> · 차란희<sup>1</sup> · 오국환<sup>1</sup> · 주권욱<sup>1</sup>  
김연수<sup>1</sup> · 안규리<sup>1</sup> · 한진석<sup>1</sup> · 김성권<sup>2</sup> · 박규주<sup>3</sup> · 문주영<sup>1</sup>

### A Case of 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Adhesiolysis

Hyun Bae Yoon<sup>1</sup>, Seung Seok Han<sup>1</sup>, Hyo Sang Kim<sup>1</sup>, Ran-Hui Cha<sup>1</sup>, Kook Hwan Oh<sup>1</sup>, Kwon Wook Joo<sup>1</sup>  
Yon Su Kim<sup>1</sup>, Curie Ahn<sup>1</sup>, Jin Suk Han<sup>1</sup>, Sung Gwon Kim<sup>2</sup>, Gyu Joo Park<sup>3</sup>, Joo Young Moon<sup>1</sup>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sup>1</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sup>2</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sup>3</sup>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eo Medical Center

**서론** : 피막성 복막경화증 (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 EPS)은 복막 투석을 시행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나,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복막의 경화와 함께 장폐쇄가 동반되고, 복통과 구토, 체중의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종합 비경구 영양법, 면역 억제 요법,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망률은 여전히 3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0세 남자가 지속되는 복통과 구토로 내원하였다. 20년 전에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고, 13년 전에 복막 투석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반복적인 복막염이 발생하여 항생제로 치료하였다. 4년 전에 복통과 구토가 발생하였고,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복막의 석회화 소견과 다량의 복수 및 장벽의 조영 증강 소견을 보여 경화성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혈액 투석으로 전환하였고, Colchicine과 Prednisolone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에도 수 차례 장폐쇄증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구 영양 섭취가 부족하여 혈청 albumin은 3.2 mg/dL였고, 체중은 평소의 50 kg에서 40 kg까지 감소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는 14.2 kg/m<sup>2</sup>였다. 이에 입원 후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복막 경화증 소견이 보였으며, 전장에 걸쳐 소장외 유착이 관찰되었다. 복막의 피막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소장외 유착에 대하여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복통 및 구토가 호전되었고, 식사량이 증가하면서 전신 상태도 호전되어 수술 후 65일째에 퇴원하였다.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으로, 수술 후 134일째에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혈청 albumin은 4.3 gm/dL으로 증가하였고, 혈청 콜레스테롤은 수술 전 92 mg/dL에서 208 mg/dL로, 헤모글로빈은 9.2 g/dL에서 12.5로 각각 증가하였다. 체중은 61 kg으로 체질량지수는 21.6 kg/m<sup>2</sup>이었다. 같은 시기에 실시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복강내 저류액 (fluid collection)은 호전되었고 장폐쇄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저자들은 경화성 피낭성 복막염으로 인한 반복적인 장폐쇄증으로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던 환자에서 수술을 통해 호전된 증례를 1예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